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전교인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범위: 이사야 34장부터 예레미야 22장까지).
2. 교회 창립 19주년(7월 15일)을 준비에 좋은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성도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체 예배와 선교회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가 있는 주일입니다(느헤미야 실, 11시 30분). 기도로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5. 이태한 목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대회와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6.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통가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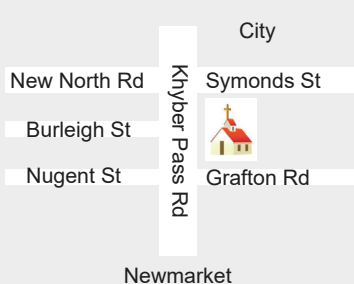
2018년 5월 20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사도행전 2:17-18
◎ 찬송	빈들에 마른 풀같이 183장
◎ 신앙 고백	사도신경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대표기도	김현주 권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8:2-12
찬양대 찬양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성철 목사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도	이성철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도	임혜자권사
성경봉독	창세기 41:50-52
설교	므낫세와 에브라임/ 박태신목사
찬송	338장
주기도	다같이

5월 교회 사역

5월 6일(주일): 자녀주일
 5월 11일(금요일): 저녁기도회
 5월 13일(주일): 부모주일
 5월 30일(수요일): 공동체 주관예배
 (통가공동체)

5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신장우 집사
 다음 주일: 박재용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권우석 형제
 5월 30일 수요일: 이광희 장로
 5월 30일 애찬: 박영신 사모
 6월 3일 주일: 고성일 장로
 6월 3일 청년부: 김유라 자매

5월 예배 봉사자

예배안내: 손조훈/이애란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차안내: 김교섭/민광호
 주방봉사: 박재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령의 능력 안에 보호 받아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기도와 언행이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3. 영육의 연합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회복이 일어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여러 성도들의 성경통독 나눔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5-6)”.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려 한다. 젊은 날의 시간들 속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보려 했던, 그러나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않았던 인생경험들을 거쳐 이제서야 터득한 것이 있다면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를 버리고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내게 너무나 필요했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나 보다. 지금도 나는 질병의 고난 속을 통과하고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심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하심이며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로 던지셨나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읊조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116:17)

하나님께 감사제사를 올리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 돌틈에 노오란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 조차 당연시 여기지 말자. 에텐동산에는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했지만,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단 한가지 과일에 집중하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다른 선택에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다.

가지지 못한 것,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자. 햇빛, 꽃, 단비 하나님이 주신 무수히 많은 선물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이지수 자매